30회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토론 자료 -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도시의 세계화 -

- 이규호-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시 현황

- 1.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도시의 세계화가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 세계적인 인재, 기업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 2.대덕연구단지가 올해로 40 주년을 맞이하게 됨. 그동안 대덕연구단지는 대덕연구학원 도시에서, 대덕벨리, 그리고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그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 왔음. 세종행정복합도시와 함께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의 거점 지구도 이곳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대전은 연구개발, 신기술, 신산업 창출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 대덕 연구단지의 지속적 발전은 21세기 우리나라 발전의 핵심역량이 될 것임.

대덕연구단지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 성장동력 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이 계속 이곳으로 유입되어야함. 대전시의 교육, 문화, 의료기관 등의 생활 인프라 시설과 유치 외국인을 위한 주거, 2세 교육시설 등이 확충. 외국인의 출입, 행정지원 등이 훨씬 더 편리해져야 함. 특히 외국인들이 대전에 왔을 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체제가 필요함.

- 3. 유성구, 대덕특구, 대전시에 국제화를 위한 유일한 행정조직이 대전시의 세계과학도시 연합 사무국인데 이곳도 대전의 국제화를 이끌기에는 미흡하다.
- 4. 대전시의 다양한 국제행사 WTA(대학총장포름, 시장포럼, 하이테크 페어), 대덕특구진흥재단 (ICIC), KAIST(세계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 다양한국제학술대회, 세계 과학혁신 포럼: 각 국제행사의 contents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국제행사는 공동개최가 추진

5. 대덕연구단지, 대전의 과학 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 부족

대전시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방안

- 1.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 조직, 사람, 예산 대전시, 유성구, 미래창조과학부 (대덕 특구, 국제 과학비지네스벨트) 연구소, 대학의 국제협력팀, 대덕클럽과 같은 NGO, 기관장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 구축
- 2.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시 전체의 Planning: 건축가 참여 눈앞의 돈을 벌기 위한 난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과학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대전의 재창조 계획을 마련
- 3. 대전의 국제화/개방화 노력 대전사람, 충청사람만이 아닌 전국의 인재, 세계 각국의 인재를 이 지역 으로 모아야 함.

과학기술 외에 국제적 기준의 문화, 의료, 교육 체계 대전시민의 영어교육, 시민강좌

International zone : KAIST와 충남대 사이의 어은동, 궁동을 포함하는 대학가를 International zone으로 개발 (영어간판, 고급문화가 함께 해야 함)

International center 설치: 특구지역 부터 시작, 시, 구, 특구공동으로 운영

- 4. 대전 고유의 과학문화 창출: 과학과 문화가 어울리는 창조도시로 발전 다음 4개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구축
 - 대덕과학문화센터(현 목원대학교 대덕문화센터): 교류의 장,
 - 공동관리 아파트: 도서관, 전시 공연실, 방문 연구원들을 위한 Guest house
 - 엑스포 공원: 국가과학공원으로, 국제 사이언스 훼스티발 개최하는 명소로 개발
 - 구 충남도청 부지: 대전의 복합문화공간,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국제복합문화거리로 개발

국제적 건축가, 전문가의 참여:

5. 국제사이언스 훼스티발 개최: Artience(Art and Science) Festival 미래창조과학부, 대전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관장협의회, 유성구, 연구소, 대학, 기업, NGO 등이 함께 지원: 총감독 체제의 조직 구성예)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페스티발, 독일 린츠시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발 등 광주 비엔나레, 부산 국제영화제 수준으로 발전대전시에서 개최되는 여러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안: 대전시의 신성장산업과, 과학특구과,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과가 함께 있는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결언

- 1. 대전과 대덕연구단지는 미래 창조과학 및 성장동력 중심지 역할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창조 도시로 발전하기위해 세계화/국제화가 필요함 세계적 과학문화도시 지향
- 2. 새로운 세종시대: 일 선진 문화 국가: 세종시와 국제 과학비지네스벨트의 거점지구인 대덕연구 단지와 대전시는 21세기 우리나라 발전의 핵심역량이 될 것임.
- 3.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과 함께 대전시와 대덕연구단지의 모든 단체가 힘을 모으고 역할 분담을 잘 하면 반듯이 대전이 세계적인 과 학문화도시로 21세기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임.